

파이낸설뉴스 PiCK (i)

인앱결제 두고 카카오·구글 '마이웨이'...소비자는 '난감'

입력 2022.07.05. 오후 4:47 · 수정 2022.07.05. 오후 5:24







(a) カカ (c)

아웃링크 유지한 카카오에

구글, 카톡 업데이트 심사 거절

기존 구글플레이 사용자 우회 APK·타 앱마켓 활용해야 불똥 소비자에 튀었단 지적도

정치권, 방통위 조치 촉구

∰ 동아일보

카카오, 신사옥 '판교 아지트' 열어

입력 2022.07.05. 오전 3:04









카카오가 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돔시티 6-1 블록에 신사<mark>옥 '카카오 판교 아지트'(사</mark>진)를 열었다고 밝혔다. 주차장 포함 지하 2~7층과 지상 1~15층을 10년 임차했다. 연면적 16만2730m²(약 4만9000 평) 규모이며 수용 가능 인원은 4300명이다. 카카오 본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, 카<mark>카오페이증권, 카카오</mark> 벤처스, 카카오임팩트, 카카오헬스케어 등 계열사들도 입주한다. 카카오는 아지트가 '사람들이 자주 어울 <mark>려 모이는 장소'라는</mark> 뜻을 가진 점에 착안해 신사옥 이름을 지었다고 설명했다. 카카오 관계자는 <mark>"공개하</mark> 고 공유하는 문화,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는 카카오 방식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길 바란다는 취지로 명명했다"고 했다.